

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 2818억원 투입

출생 축하 상생카드 50만원 등 보편복지 강화·건강한 출산 지원 저출생정책 사각지대 지원 확대 공무원 육아지원 특별휴가 3종도

광주시는 2025년에 예산 2818억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배로 증액(2억원→4억원)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문화와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저출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에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중·고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부터 광주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

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가 중소기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 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영록 지사, 도민 민생안정 총력 다짐

목포 동부시장 찾아 의견 청취 "탄핵정국 어려움 없도록 지원"



이에 김 지사는 "도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19일 전통시장을 찾아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심을 살피며 지역사랑상품권·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목포 동부시장을 둘러 상인, 방문객 등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으며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명석 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더욱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 발행 및 할인율 최대 10% 확대 △영세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등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오지현 기자



북구 용봉동, 몰래산타 19일 광주 용주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산타복장을 하고 몰래산타로 변신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꾸러미를 나눠주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무안에서 출발하는 색다른 해외여행, 이제는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2박 3일



2024.12.02~2025.03.26(매일출발)
★오후(17시)출발★ 알찬 2박 3일 여행!

- ▶ 도쿄+요코하마 여행 : 999,000~
- ▶ 도쿄+하코네 온천여행 : 1,019,000~
- ▶ 도쿄 골프 36H : 1,289,000~

무안출발 씨엠립(캄보디아)관광



2024.12.29~2025.03.16(목/일출발)
목요일출발(3박4일)/일요일출발(3박5일)

- ▶ 씨엠립+앙코르왓 관광 : 999,000~
- ▶ 골프36H+앙코르왓 관광 : 1,449,000~
- ▶ 골프 ONLY 54H : 1,499,000~

무안출발 하노이(베트남)관광



2024.12.15~2025.03.26(수/토출발)
수요일출발(3박4일)/토요일출발(3박5일)

- ▶ 옌뜨+하롱베이 관광 : 849,000~
- ▶ 하노이+크루즈+옌뜨 : 1,249,000~
- ▶ 골프 ONLY 54H : 1,299,000~